척박한 땅에 길이 나려면 수 없는 발자국을 남겨야 한다

이병철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랑의교회에서 화천군에 농촌선교사로 파송 받아
사역하다가 춘천에서 주향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주향교회. 북한강변 부드러운 아이보리빛 벽돌로 된 교회당은 유럽 소도시의 교회를 연상시킨다. 그 어떤 아픔도, 어려움도 없이 행복할 것 같은 인상이다. 그러나 한 지역 교회가 자립해서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눈물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회자라면 모두 인정할 것이다.

주향교회도 순탄치만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서 있다. 2001년에 개척했으니 올해로 10살이 되었다. 이병철 담임목사는 그 10년의 세월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사람에 대해서 실패도 맛보고 제자훈련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목사는 여전히 제자훈련을 흔들릴 수 없는 목회의 본질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주향교회를 이미 제자훈련에 성공한 모델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척박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된 길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제자훈련 목회의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현장 이야기에서는 지방 소도시에 있는 한 개척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경험한 은혜의 축복과 함께 고민과 실패, 상실감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그러나 다시 일어서 상처를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전해보려 한다.

농촌 선교 현장에서 배운 한 사람 철학

이병철 목사가 제자훈련을 접하게 된 것은 고향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대학생 시절부터 다니기 시작한 사랑의교회 대학부를 통해서였다. 87년부터 사랑의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의 일이다.

옥한흠 목사의 설교와 오정호 목사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불타오른 청년 이병철. 그는 사랑의교회 국내선교부에서 개최한 농어촌 교회를 위한 세미나에 찾아온 목회자들과 연결되어, 97년 사랑의교회 국내선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강원도 화천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화천으로 내려간 이 목사 부부는 4년 동안 청소년 선교회를 조직하여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화천지역 목회자 모임과 농민모임을 조직하여 교회와 지역사회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연합사역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천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

"당시 저는 가끔 지역 목사님들에게 일이 생기면 설교로 섬기는, 소위 '땜빵 목사'로도 사역을 했었어요. 화천에서 농촌사역을 같이 하던 장로님 한 분이 춘천의 한 교회에 저를 소개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목회자가 공석인 한 교회에서 설교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춘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향교회와의 인연의 시작입니다."

초청을 받아 간 교회는 아직 이름도 없이 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상태였다. 알고 보니 춘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그 일로 교회를 떠난 여러 교인들 중 일부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교회의 대표격인 한 장로는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던 중 이병철 목사의 소문을 듣고 초빙한 것이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이 목사는 자신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교회의 요구를 정중히 사양하고, 다른 목사를 그 교회에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 목사는 선뜻 결정을 하지 못했다. 자의반 타의반 그 성도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목사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한 가지 이유는 함께 농촌연합사역을 하던 사역자들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혼자만의 결정이라면 춘천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과 화천에서 함께 긴밀하게 사역하던 4명의 목회자들이 모두 춘천의 교회 개척을 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촌 교회를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도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제자훈련 목회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사실 이 목사가 주향교회로 가기로 선택한 것은 비단 그러한 이유만은 아니었다.

"화천에서 4년간 사역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한 사람 철학입니다. 사실 옥한흠 목사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화천에서였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자란 사람의 옷을 벗고 농촌 교회의 옷을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예수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 믿는 사람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런 귀한 영혼들이 목회자 없이 방황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과 건강한 교회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건강한 교회상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춘천에 이미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우리 주향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

그렇게 주향교회는 2001년 13평 상가에서 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생겼다는 마음에 기뻐했지만, 한편으로 저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예민한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시간 신앙 생활하던 교회가 지척에 있는 것도 부담이었고, 혹시라도 이 젊은 목사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이 많은 상태였던 것이다.

또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떠났다는 어떤 정죄의식이 그들에게 잠재해 있었다. 게다가 그 당시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향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없었다.

한동안은 주일 대표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라고 이전에 다니던 교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아직 주향교회로서의 DNA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는 어떠한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이병철 목사는 복음 선포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과 건강한 교회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건강한 교회상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춘천에 이미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우리 주향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상처들을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아픔이 바로 목회자의 아픔이니까요."

젊은 목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것일까? 주향교회 초창기 교인들은 이 목사의 설교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개척 초기부터 주향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희 권사의 말이다.

"참 힘들었던 시기에 젊은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기에 더 좋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비록 조그마한 상가 교회였지만, 부족한 교회,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교회에 관한 메시지들이 저희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교회가 사용한 건물은 전세 500만 원에 불과했으니, 교회가 거의 금전적인 부분에는 부담 없이 사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당시를 회고하며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가 40명이 모일 때까지 13평 상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간이의자를 놓으면 소그룹에서 공동체 예배까지 불가능한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준비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작게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 가정에서 모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보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안정을 찾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무렵인 개척 1주년, 주향교회는 처음으로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갑자기 교회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당시 주변에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사실 주향교회 성도들은 모두 한 교회에서 건축 과정에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해 나온 성도들이었기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쉽게 동요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감하게 600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150여평의 건물을 짓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초기 1년 동안 이 목사가 보여준 복음과 올바른 교회론에 근거한 사역이 가져다준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조립식 예배당이 마련되기까지 생선가게 옆 작은 공간에서 잠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맹인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주향교회만의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기쁨에 고생스러운 줄 몰랐다고 한다.

비전은 공유될 때 비로소 비전이 된다

제자훈련 목회 외에는 목회 전략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병철 목사는 개척 초기 1년 동안 꾸준히 제자훈련을 준비했다. 우선 성도들을 나누어 소그룹을 경험하게끔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비전 공유였다. 제자훈련 사역을 도입하려는 많은 목회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바로 성도들과 충분히 비전을 공유하지 않은 채, 제자훈련을 성급하게 시작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비전 공유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나눌 때 전달되는 것이다. 비전 공유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목사는 개척 후 1년 동안 모든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비전이 보다 쉽게 공유될 수 있었다.

주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목사가 시시때때로 말하는 비전을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 새신자반부터 모든 모임에서 그 비전을 외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목사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과 아울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이며,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교회가 주향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인데, 안디옥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당한 환란을 창조적으로 승화하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교회이고, 둘째로는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1세기 당시에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전해지는 가교적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한 교회로 그 시대의 장벽을 뛰어 넘어 복음을 전한 교회이며, 셋째로는 그 지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사회적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향교회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주관적인 영성과 사회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영성을 겸비한 교회로 세워 보자고 설교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늘 나눴습니다."

초창기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신선하게 받아들였다. 전통적인 기성 교회에서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신앙생활을 해 온 성도들은 아주 행복해하며 훈련에 임했다. 1기 제자훈련 수료자인 김정희 권사의 말이다.

"담임목사님과 2~3시간 넘게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목사와 성도가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었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해소의 시간, 진정한 돌봄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다시 발견하다

1. 한계를 발견하다

주향교회는 제자훈련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했다. 구입한 대지 위에 가건물만 세워 놓았는데도, 꾸준히 성장했다. 초기에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교회당 이전과 함께 지역이 개발되면서 인근 주민들도 찾아오게 되었고, 제자훈련과 함께 새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도되었다.

그리고 개척 5년차 주향교회가 120명으로 성장했을 때 건축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다. 가건물로 장년 예배는 가능하지만,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주향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주향교회를 함께 시작하고 그 당시까지 성장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한 소위 개척 멤버 몇 명에게서 발생했다. 교회 재건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반대 입장은 도가 지나쳐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너무나 소중한 20여 명의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중에는 제자훈련을 받고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하던 리더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회가 그만큼 성장할 때까지 주역을 감당하던 분들이었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까지 그분들의 노고가 참 많았죠. 제자훈련을 받고 함께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아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과정을 공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과 다르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었던 내면의 깊은 문제까지 살피지 못한 것이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니깐요. 그만큼 제자훈련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나 좌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보다는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 교회가 바로 서 가는 과정에서 겪어내야 하는 아픔들로 인해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죠."

이 목사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훈련이 목회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당시 이 목사는 좋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던 제자훈련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제자훈련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중에는 어떤 대안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여전히 제자훈련 목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일을 통해 제자훈련의 한계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 또한 발견했기 때문이다.

2. 가능성을 발견하다

주향교회의 제자훈련은 실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제자훈련 목회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한계를 경험한 것이다. 훈련생의 경우에 따라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으면 내면의 동기까지 변화시키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병철 목사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앞장서는 사람들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훈련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도병과 같이 소그룹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 여린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설명하고 염려하며 마음을 다잡아주는 사람들도 그들이었다.

그들은 새로 오는 교인들의 정착과정과 양육과정에 솔선수범하였다. 교회학교 교사와 교회 행사들, 그리고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어려운 봉사까지, 각종 사역마다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며 뛰어든 것도 바로 이 훈련받은 일꾼들이었다. 이들은 교회 건축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해 재정적인 헌신에도 앞장서서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 당시를 회고하는 이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당시 성도들을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해서 지금도 감격합니다. 사실 주향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정적인 헌신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목사를 위로하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풍비박산될만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든든히 지키던 사람들 가운데는 개척 멤버들이 다수 있었다. 사실 문제의 장로와는 인간적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1기 제자반 수료자 김정희 권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저는 주향교회에 오기 전부터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평신도의 책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향교회를 섬기고자 했을 뿐입니다. 인간적 감정으로 참 힘든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이 목사는 제자반을 그만두지 않았다. 2006년 당시에는 4기 제자반이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던 이은정 집사의 말을 들어보자.

"제자훈련은 목사님 가까이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저는 그러한 문제를 접하는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든 분은 바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매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

주향교회의 제자훈련은 실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제자훈련 목회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한계를 경험한 것이다.
오히려 이병철 목사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요. 그래서 저희 기수가 가장 잘 훈련받은 반이라고 저희는 자부한답니다."

이렇게 이미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들과 제자훈련 중이었던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에 이 목사는 더욱 제자훈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3.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발견하다

그러나 이병철 목사의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왜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안고, 다른 목회철학을 배우거나 목회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세미나를 다수 참석 해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다시 자신의 제자훈련 방식을 돌아보고 제자훈련에 관한 자료들과 보안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옥한흠 목사와 사랑의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고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의교회의 개척 초기 이야기를 담은 『개척 10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 목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자신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출간되자마자 읽었던 감동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 있었다.

옥 목사님도 개척 교회 목회자라는 사실이 실감되면서,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수풀이 무성하여 길이 나지 않은 척박한 땅에 길을 내기 위해서, 목회자는 그래도 또 한 걸음 또 한 발을 내딛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실시하는 제자훈련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보완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보완했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완 하나 : 목회자 자신이 변해야 한다

이병철 목사는 자신이 경험한 제자훈련의 한계가 제자훈련 자체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목회를 모르고 목회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의교회 대학부를 거쳐 국내선교부에서 일하면서 파송을 받았을 때는 선교 마인드가 강해서 교회와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어떤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실행하는 면이 강했는데, 실제 목회를 해 보니 목회는 영혼을 만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나마 목회가 가능했던 것은 사랑의교회에서 배운 제자훈련에 대한 기본정신과 자연스럽게 습득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숙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익히면서 체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 목사는 제자훈련 목회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제를 중심으로 한 질문 중심의 제자훈련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신선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좀 더 내면화된 질문을 던져서 성도들의 깊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목사는 제자훈련의 승패가 훈련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자훈련 방법에 앞서서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제자훈련에 임하는 목회자의 자세라고 말한다.

"정작 제자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데, 목회자 자신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인도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훈련을 준비하며 제가 먼저 말씀에 은혜 받으려 하고 훈련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보완 둘 : 지방 교회 제자훈련 관건은 눈높이

선발과 함께 지방 소도시 제자훈련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눈높이 제자훈련이다. 특히 초창기 주향교회는 성도들의 나이와 학력이 현저히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훈련의 일정한 수준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너무 하향조절하면 양질의 리더가 배출되기가 어렵고, 상향조절을 하게 되면 제자훈련을 진행하기조차 버거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 수준을 적절하게 맞추고, 개별적으로 훈련생을 관리하여 일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맞춤식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디사이플〉 4월호에서 다룬 주제가 눈높이 제자훈련이었는데요. 박희석 목사님의 글에 많은 부분 동조를 했습니다. 저도 고학력자와도 훈련해 보고 학력이 많이 부족한 분들과도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결과는 지식적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삶의 변화였습니다."

이 목사가 적절한 눈높이를 찾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 눈높이가 잘 맞았을 때에 삶의 변화가 극대화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제자훈련 교재가 풍성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올바른 훈련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07년 이후 제자반을 개설할 때는 가능한 눈높이에 맞추어서 반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반의 상황에 따라 훈련의 강도와 방식도 달리했다. 또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양육과정을 개설해서 실시했다. 그러나 주향교회 실정에 꼭 맞는 과정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 과정에서 주향교회의 실정에 맞도록 제작된 독특한 양육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다. 〈영적 재무장을 위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그것이다. 이 교재는 이 목사가 그동안 사용한 양육 교재의 장점을 뽑아서 직접 제작한 10주 과정의 양육반이다. 올해는 개척 10주년을 맞아서 한 해 제자훈련을 쉬면서 전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

보완 셋 :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훈련

이병철 목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지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 성경을 보는 주된 관점도 변화에 맞추어졌다. 그 과정 가운데 결국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확신이 서게 되었다. 복음서에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예수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 그동안

'왜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개척 10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 목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주향교회의 비전은 1세기 당시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21세기 복음의 확장을 가로 막고 있는 장벽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성령께 의탁하는 강도를 달리하기 시작했다.

"제자훈련이 육신의 훈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더욱 의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을 위해 목회적인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 그 자체 안에서 새로운 보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훈련 안에서 모든 것이 그 전과 같이 진행되지만 제자훈련 중에 훈련생들이 문제에 봉착하거나 한계에 다다르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해결하려는 일들을 중단하고 그 문제를 갖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고 격려만 해도 충분한 위로와 평안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훈련생들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도를 하게 되자 훈련생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성령께 의지하고 훈련에 임했을 때 훈련생들의 삶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훈련생들의 내면 깊이 숨겨두었던 죄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구요. 저 자신도 유혹이나 시험에 관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지요. 목회자의 자기 오픈도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목회자와 훈련생들이 서로 가면을 많이 벗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행되어야만 유익이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먼저 성령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늘 무릎을 꿇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완 넷 : 리더 모임은 제자훈련의 연속이다

아직 주향교회는 160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12명의 평신도 리더가 사역하는 손에 잡히는 구조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을 이용해서 8명의 여성리더모임을 하고, 토요일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나머지 4명의 남성리더모임을 가진다. 먼저 리더들이 각자의 소그룹 상황을 나누고 나서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로 큐티 나눔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 목사가 준비한 설교 나눔 교재를 가지고 각자의 소그룹에서 나눌 포인트를 설명한다. 때로는 시기에 맞게 성경공부 교재를 다루거나 신앙서적을 나누기도 한다. 최근에는 전도에 대한 〈신앙생활 ABC〉라는 책을 나누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향교회 리더 모임에서 주목할 것은 이 모임 또한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이다. 아직 소그룹 리더가 몇 명 되지 않았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수료하고 2년째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은정 집사의 말을 들어보자.

"리더 모임이 8명 소그룹으로 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훈련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계속해서 소그룹으로 모였으면 해요. 소그룹에서 훈련을 받고 소그룹의 리더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재교육도 소그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리더로 섬기기가 수월합니다."

실제로 이 목사는 리더 모임도 훈련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2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완전히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향교회 리더 모임은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점검하며, 목회자로서도 성도로서도 즐겁게 성장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주향교회 제자훈련은 계속해서 보완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장벽을 뛰어넘어 길을 내는 교회

"목회자인 제 마음에는 늘 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마음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이고, 다른 한 교회는 현실의 교회인 주향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세기 당대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상황에서 시대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주향교회의 비전은 1세기 당시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21세기 복음의 확장을 가로 막고 있는 장벽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 항상 꿈을 꿉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처럼, 통일이 된 후 북한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꿈을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주향교회는 장벽을 허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개척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이며, 지금은 모든 구역마다 농촌교회와 선교사들을 연결하여 섬기고 있다.

또한 주향교회는 정신지체 장애인 10여명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지 8년이 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장애인들 과의 어울림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막힌 담을 헐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고자 한국과 일본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여는 집회인 '한일연합춘천리바이벌 미션 집회'(5월 25일~27일)를 주도적으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내는데 지난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주향교회 제자훈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다듬고 덧붙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될지도 막연하다. 하지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의 곁에서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지금도 사역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제자훈련생들이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한때는 이 목사 홀로 가진 꿈이어지만, 이제는 주향교회 전체의 비전이 된 것이다.

오랜 시간 사람이 찾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산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곳에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것이다. 뒤에 걸어올 사람을 생각해서 가시가 있는 나무는 꺾어 주고, 억센 풀도 다니기 좋게 눌러주면 뒤따르는 사람은 한결 편안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걷던 이 목사는 이제 주향교회 15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걷고 있다.

주향교회라는 이름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는 성도들이 춘천을 뛰어 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 향기를 우리 모두가 맡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김영현 목사〉